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과 의미

이금희*

차례

1. 서론
2.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
3.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4. 결론

〈국문초록〉

부사의 일반적인 기능은 용언이나 또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어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이 존재한다. 체언은 관형사라는 문법 범주가 수식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몇몇 부사 형태들은 관형사가 담당하는 문법 범주를 침범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물론 하나의 형태가 ‘명사’나 ‘부사’로 쓰이고, ‘감탄사’나 ‘부사’로 쓰이는 등의 품사 통용을 하는 경우는 국어에서 흔한 현상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형태들은 부사로서의 쓰임에서는 서술어와의 제약이 크지 않는 데 반해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후행하는 명사가 극히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품사 통용과 차이점을 갖는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부사로서의 기능을 하던 형태들이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발생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아직 그 기능이 일반적인 관형사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사로 기능하던 이런 형태들이 어떻게 체언을 수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 그간의 연구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이라고 한 것들을 의미적으로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부사 형태들이 체언 수식을 하게 된 경위는 부사가 용언이나 동사구, 또는

*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문장에 선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위치적인 특성으로 인해 체언류와 인접할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후행하는 체언과의 의미적 관련성으로 인해 수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체언 수식 부사들은 그것의 의미에 따라 수량의 많고 적음을 나타내는 종류와 위치의 높고 낮음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종류, 그리고 상태의 많고 적음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종류, 마지막으로 후행하는 명사를 지정하거나 강조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종류들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주제어】 체언수식부사, 부사의 위치 이동, 재구조화, 수량의 정도성, 위치의 정도성, 상태의 정도성, 지정성

1. 서론

일반적으로 부사는 한 문장에서 서술어나 부사어를 수식하는 구실을 한다. 그런데 국어의 부사 중에는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예들이 있다.¹⁾ 이런 예들을 견해에 따라서는 부사의 특이한 쓰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고려해 관형사로 보는 경우도 있다.²⁾

-
- 1)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일본어나 영어 등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음 예는 Quirk, R (1972:279)에서 영어 부사가 명사구를 수식하는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 (1) a. He had quite a party. (그는 많은 파티를 했다)
b. He was quite some player. (그는 꽤 하는 선수였다.) (Quirk, R 1972:279 예)

- (2) 가. もっと上を見て下さい. (더 위를 봐 주세요.)

나. 私の席はいちばん後です(내 자리는 가장 뒤이다.) (이선회2000:49 예)

- 2) 최현배(1957), 김민수(1955), 서정수(1975), 남기섬·고영근(1993), 이익섭·채완(2007) 등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부사의 특이한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왕문용·민현식(1993)과 임유종(1997), 이관규(1999), 민현식(2002) 등에서는 관형사로 보고 있다.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를 다음과 같이 ‘정도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다.

<국어 관형사의 분류>

- (ㄱ) 지시 관형사; 이, 그, 저, 다른, 어느, 무슨, 아무, 어떤, 옛, 올, 現, 舊, 前...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의 쓰임은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고, 관형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품사라는 기본적인 품사의 특성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런 부류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가 그동안의 관심사였다. 또한 몇몇 논의에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와 이런 부사들은 어떤 의미 특성을 갖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³⁾

그런데 명사나 명사구를 수식하는 이들의 품사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자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지만 이런 부사들의 목록 또한 논의에 따라 다르게 보고 있다.

어떤 품사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사로 쓰이던 이들이 체언을 수식한다는 것만 증명되면 당연히 관형사로서의 쓰임을 인정을 해야 할 것인데 황화상(2009:321)에서 논의되었던 것처럼 부사에 똑같은, 혹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체언에 선행하면 관형사로, 용언에 선행하면 부사로 다루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⁴⁾

본고는 부사로 쓰이던 이들이 어떻게 용언이 아닌 체언을 수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들을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ㄴ) 수 관형사: (양수)한, 두, 세...(서수)첫, 첫째, 둘째, 셋째...

(ㄷ) 성상 관형사

└상대 관형사: 새, 흰, 외판, 純, 新, 準...

└정도 관형사: 오직, 바로, 겨우, 한갓, 고작, 한낱, 다만, 아주, 但只, 惟獨, 天生, 진짜, 꼭, 참, 맨, 딱, 한, 다만, 無慮, 約, 近, 不過, 單...

공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체언의 수식은 관형사의 몫이므로 ‘관형사’로 범주화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들이 통시적으로 부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체언 수식 부사’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나온 사전들에 서조차도 이들을 관형사로 분류하고 있지 않고 부사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3)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과 의미 특성에 대해서는 김경훈(1977), 박선자(1983), 김선희(1985), 이규호(2008)에서 진행되었다.

4) 그래서 기존의 많은 논의에서 관형사로 처리하지 않고 ‘체언 수식 부사’라 하여 부사와의 관련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먼저 여러 논의에서 제시된 체언 수식 부사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언 수식 부사 목록

- 가. 최현배(1937/1982): 곧, 겨우, 넉넉히, 바로
- 나. 남기십'고영근(1985:1993:176~177): 겨우, 바로, 아주
- 다. 김선희(1985:124): 고작, 꼭, 더, 바로, 한갓, 한낱, 다만, 별로
- 라. 왕문용'민현식(1993:180~182):겨우, 고작, 꼭, 다만, 단지, 똑, 맨1, 맨2, 바로, 아주, 오직, 유독, 진짜, 참2, 천생, 한갓, 한낱/근, 다만, 단, 딱, 무려, 불과, 약, 한
- 마. 김경훈(1996):48): 거의, 겨우, 바로
- 바. 이익섭'채완(1999:131): 꽤, 바로, 아주
- 사. 임유중(1999:60~62): 매우, 무척, 바로, 아주, 한갓
- 아. 황선영'이공주(2002): 가장, 거의, 겨우, 고작, 극히, 기껏, 꼭, 꽤, 다시, 단, 단지, 대략, 더, 딱, 또, 마치, 무려, 바로, 불과, 비교 적, 소위, 심지어, 아주, 약간, 오래, 오로지, 오직, 완전히, 이른 바, 자그마치, 잠시, 전혀, 제일, 특별히, 한낱, 한참, 훨씬
- 자. 이규호(2008:13~23): 거의, 겨우, 고작, 그대로, 깜짝, 꼬르륵, 꼭, 꼬박, 너무, 노랗게, 다소, 단, 단연, 달랑, 대략, 대량, 대폭, 덜덜덜, 돌연, 딱, 멀리, 멀찌감치, 모두, 무려, 무사, 물경, 반짝, 불과, 빨강게, 쉽사리, 스스로, 심히, 약, 어언, 외려, 워낙, 장장, 줄줄이, 진정, 천천, 천천만만, 최고, 총, 최근, 푸룽푸룽, 풍족히, 하나, 한갓, 향후
- 차. 이수미'김민국(2009:173): 겨우, 고작, 단지, 딱, 무려, 바로, 불과, 오직, 한, 한갓, 한낱
- 카. 황화상(2009:334~340): 겨우, 근, 무려, 바로, 아주, 약, 한낱...
- 타. 이은섭(2011): 거의, 겨우, 다만, 단지, 오직, 아주, 바로

위 목록을 보면 체언 수식 부사를 논자에 따라 적게는 서너 개의 목록에서 많게는 50여 개로 보기도 한다. 서너 개로 제시된 논저는 주로 개론

서적인 것들로 대표적인 예만 든 것이고 본격적인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에 대한 논의들에서는 최소 7~8개 이상을 설정하고 있다.

그 항목을 살펴보면 ‘바로(12)’처럼 거의 모든 논의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들도 있고, ‘겨우(9), 아주(8), 한갓(7), 한낱(5), 고작(5), 무려(5), 꼭(4)’처럼 몇몇 논의에서는 포함하나 다른 논의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것들도 있다. 또한 ‘매우, 너무, 무척, 곧, 대략, 거의, 진짜, 오래’ 등은 한 논의에서만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를 보는 입장이 다른 것은 그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텐데 체언에 선행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논의가 있는가 하면 이은섭(2011)에서처럼 체언에만 선행해서 쓰이는 ‘근, 단, 약, 장장, 총’이나 ‘대략, 무려, 물경, 불과, 어언, 한갓, 한낱’은 아예 관형사로 보고 ‘거의, 겨우, 다만, 단지, 오직, 아주, 바로’처럼 부사로서의 쓰임과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 모두 존재하는 것만 체언 수식 부사로 보는 경우가 있다.

이은섭(2011:311)에서는 체언에 선행하는 부사들을 부사와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부사는 문장의 맨 마지막에 보충할 수 있는데 관형사는 그럴 수 없다는 ‘후보충 구문 제약’을 들었다. 관형사는 위치에 제약을 갖는 반면, 부사는 자유롭다는 점을 고려해 세운 기준이다.

- (2) 가. 그 팀은 경기에 졌지만 그대로 1위를 지켰다.
 가’. 그 팀은 경기에 졌지만 1위를 지켰다, 그대로.
 가”. 그 팀은 경기에 졌지만 그대로 지켰다, 1위를.
 나. 우체국 바로 옆에 텃밭이 있다.
 나’. *우체국 옆에 텃밭이 있다, 바로.
 나”. *우체국 바로 텃밭이 있다, 옆에. (이은섭 2011, 예문)

(2가)의 ‘그대로’는 문장 뒤에 보충될 수 있기 때문에 부사로 보아야 하

고, (2나)의 ‘바로’는 관형사처럼 피수식언과 분리되어 문장 뒤에 보충될 수 없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 기존 논의에서 체언 수식 부사로 본 ‘고작, 다소, 그대로’ 등은 체언을 수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체언을 수식하는 구성들은 수식하는 체언과 분리되어 나타날 수 없다는 점에서 ‘체언 수식 부사’들이 갖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수미·김민국(2009)에서는 그간의 체언 수식 부사로 보았던 목록 중 ‘겨우, 고작, 단지, 딱, 무려, 바로, 불과, 오직, 한, 한갓, 한낱’을 ‘양태 관형사’라는 새로운 범주로 설정하여 관형사로 볼 것을 제안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관형사의 배열 순서인 ‘지시관형사+수관형사+성상관형사’ 순에 지시관형사보다 선행하는 ‘양태관형사’가 존재할 수 있고 이들은 ‘체언’의 내부적인 내용과 관련되지 않고 화·청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가장 멀리 떨어져 수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관형사 분류에 대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⁵⁾ 그러나 기존의 많은 논의에서 제시되었던 ‘아주 꼭, 딱’과 같은 체언 수식 부사들이 빠져 있고 그것들이 왜 빠져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체언 수식 부사들의 목록을 살펴보면 문장 부사로 쓰이는 것들과 성분 부사로 쓰이는 것들이 모두 존재하고 의미상으로는 대체로 정도 부사나 양태 부사들로 쓰이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체언 수식부사들은 문장이나 용언을 수식할 때와 달리 체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는 기능적으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용언이나 문장을 수식할 때와 의미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게 쓰이고 있어 그 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5) 명제 내용과 관련된 내부적인 관련성을 갖는 ‘성상 관형사’나 ‘부정 부사’는 피수식어와 가장 가깝게 위치하고 ‘화·청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적 양태관형사, 양태부사는 가장 멀리 위치한다는 것이다.

- (4) 가. 그 사람이 아주 갔어요
나. 얼굴은 아주 예쁘게 생겼는데 마음씨는 왜 그러니?
- (5) 가. 아드님과 (아주) 판판의 인상을 주는 어른으로 참으로 인후
(仁厚)하시던 어른인 바 <변영로, 명정 40년>
나. 사치야. 그건 (아주) 말단의 지엽적인 사치야. 생활 조절을 전면
적으로 개편해 버리면 그만 거야 자동적으로 해결되잖아? <김
원우, 짐승의 시간>
다. 오늘 (아주) 부잣집에서 중매가 들어왔나 봐. <박완서, 도시의
홍년>
라. 지금 현 씨가 몇 살이나 됐다고 (아주) 옛날을 부르짖어요? <박
완서, 오만과 몽상>

부사 ‘아주’는 동사를 수식할 경우는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완전히 이
루어짐’을 나타내고, ‘예쁘다, 좋다’처럼 형용사를 수식할 경우는 ‘어떤 상
태의 정도성이 보통 이상의 정도가 넘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5가)의 ‘아
주 판판의’에서는 ‘완전히 판판의’라는 의미를, (5나)의 ‘아주 말단의’에서
는 ‘기준 이하의 낮은 말단의’, (5다)의 ‘아주 부잣집’은 ‘보통 정도가 넘는
부잣집’, (5라)의 ‘아주 옛날’은 ‘시간적으로 먼 옛날’을 의미한다. 이들은
모두 부사 ‘아주’의 ‘동작의 진행 정도나 상태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
적인 쓰임과 크게 다르지 않다.⁶⁾

그리고 이들 중에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일 때는 전혀 다른 의미

6) 이들은 형태적으로 동일하고 의미적으로 거의 같은데 기능적으로만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품사를 ‘형태, 기능, 의미’의 기준으로 나누는데 이때 부사와 관형사는
기능적으로 어느 것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들을 ‘관형사’
라고 하고 ‘체언 수식 부사’로 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의 고어형의 ‘아조’의 분포를 보면 대부분 동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나오지 명사를 수식
하는 자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대국어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는 쓰
임은 문법 범주의 변화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특정한 몇몇 명사만을
수식하는 분포상의 제약을 갖고 있는 점 또한 이들을 단호히 ‘관형사’ 범주에 넣지 못하
고 이유 중 하나이다.

로 쓰이는 것들이 체언을 수식하게 되면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것들도 존재한다.

(6) 가. 그가 **딱** 너만 좋다고 하는구나.

나. 그가 **꼭** 너만 좋다고 하는구나.

(6가)의 ‘딱’은 원래 ‘딱 잡아챘다, 딱 끊었다’에서처럼 ‘아주 단호하게 끊거나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모양’의 의미를 갖고 ‘꼭’은 ‘꼭 온다’에서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틀림없이’라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들인데 체언을 수식하는 위 예문에서는 ‘지시하는 바로 그 대상’이란 의미로, 서로 교체하여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이처럼 체언 수식 부사들은 부사로 쓰일 때와 의미 면에서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기능적으로 체언을 수식하고 있고 동사를 수식할 때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 형태들이 체언을 수식할 때는 유사하게 쓰이기도 한다.

2.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⁷⁾

부사는 문장 내에서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용언을 수식하거나 관형사

7) 하나의 형태가 두 개의 품사 범주로 쓰이는 경우 어느 범주에서 또 다른 범주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은 그것의 기원을 밝히지 못하는 한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언 수식 부사’의 경우 부사의 기능으로 쓰일 때는 분포상의 제약이 거의 없고 사용 빈도가 높은 반면에, 체언을 수식할 경우는 특정한 몇몇 명사에만 선행되어 쓰이고 같은 형태의 고어형을 살펴보았을 때 명사를 수식하는 쓰임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음은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적 기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의 전환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고어 말뭉치에 ‘아주’의 고어형 ‘아조’는 1800여 개가 발견되는데 (가~다)처럼 동사나 형용사, 동사구의 수식을 하는 경우는 발견되나 명사를 수식하는 예는 찾을 수 없었다.

(가) 덕뫼 비시 더브러 닐오디 내 도라울 이리 업고 그디 당당이 다른 지빅 가리로소니

나 부사, 또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하며 그것들의 서술 내용이나 정도를 한정하는 수식어라고 정의되고 있다.(서정수1975:767) 그리고 명사나 명사구는 관형사가 그 수식을 담당하는 범주이다. 그런데 몇몇 부사들 중에는 왜 체언(명사, 명사구)을 수식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이 절에서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살펴보겠다.⁸⁾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에 대한 논의로는 이규호(2008)이 있는데 이 논의에서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원인을 크게 ‘생략 현상, 어순 바꾸기, 어근 분리 현상’을 들고 있다.

(7) 가. 너무 (잘생긴) 미남

나. 다소(의) 차이가 있다.

다. 반짝(하는) 회복

라. 돌연 사퇴[=돌연(히) 사퇴(하다)]

마. 호박이 줄줄이 늘어졌다.→줄줄이 호박이 늘어졌다.

바.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다.→쉽사리 접근을 하지 못하다

(이규호 2008:23 예문)

(7가~라)는 문장 성분이나 조사, 접사의 생략으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

여기서 {아조} 여희노라 흥야늘 <三綱洞경烈14a>

(나) 나도 이리 와서 더 밋슴도 일히이고 눈도 {아조} 어둡고 귀도 머거 우돈흥고 흥니 내 뜨디 엇엇더니 <순천80:1>

(다) 문호의 불행을 니르혀물 한심 츠악흥와 교즈 못 흥 죄를 밧좁고 버거 욱즈를 {아조} 부자 늬의를 버혀 침스 존망을 모로려 흥늬이다 <명주보월병_필사본>

- 8) 하나의 형태가 둘 이상의 문법 범주를 나타내는 경우는 흔히 있는 현상이다. ‘어제, 오늘 등’이 명사와 부사로 쓰이거나 ‘아니, 참 등’이 부사와 감탄사로 쓰이고, ‘다섯, 여섯, 일곱 등’이 관형사와 수사로 쓰이는 것들이 이런 예들이다. ‘체언 수식 부사’들도 부사와 관형사로 쓰이는 품사 통용(전환)의 다른 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형태들과 달리 이들은 후행하는 체언의 의미 자질에 제약을 두고 일정한 명사와만 결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이들 부류가 기존의 품사 통용되는 것들과 차이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하는 구성이고, (7마)는 부사의 어순 바꾸기의 예로, (7바)는 어근 분리 현상으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예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어의 현상들이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만든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체언 수식 부사 (1)의 목록을 보면 부사의 특성상 조사나 파생접미사의 생략 현상이 체언 수식 부사를 만들 어낸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1)의 목록을 보면 체언을 수식하는 대부분의 부사들이 파생접미사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⁹⁾

그리고 (7가)처럼 정도부사 ‘너무’와 ‘미남’ 사이에 일정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한데 부사와 체언 사이에 어떤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도 있어 생략 현상을 모든 체언 수식 부사의 주된 형성 기제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 (8) 가. 내 바로 (*앞아 있는) 앞으로 오세요.
나. 화살이 가장 (*깊은?) 가운데를 맞쳤다.

(8가, 나)의 ‘바로 앞’과 ‘가장 가운데’와 같은 구성에서는 두 성분 사이에 어떤 성분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사가 동사나 형용사 앞뿐만 아니라 동사구나 절 앞에 부사가 위치할 수 있는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9) 부사를 형태론적인 특징으로 분류해 보면 ‘잘, 곧, 펴, 딱, 아주, 겨우, 거의, 활짝’과 같은 순수부사, 둘 이상의 형태소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곧잘, 아마도, 너무나’ 같은 합성부사, 명사 또는 어기에 ‘-이, -히’가 첨가된 파생 부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체언을 수식하는 대부분의 부사들은 순수 부사들이므로 ‘접사’의 생략으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은 타당성을 얻기 어려울 듯하다.

- (9) 가. 철수가 피자를 빨리 먹었다.
 가'. 철수가 빨리 피자를 먹었다.
 가". ?빨리 철수가 피자를 먹었다.
 나. 무릇 인간은 책을 읽어야 한다.
 나'. 인간은 무릇 책을 읽어야 한다.
 나". ?인간은 책을 무릇 읽어야 한다.

어휘 범주를 수식하는 ‘빨리’는 (9가)처럼 수식하는 용언에 선행될 수도 있지만 (9가')처럼 서술어구에 선행될 수도 있고, (9가")처럼 문장에 선행될 수도 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 ‘무릇’ 또한 (9나)처럼 문장 맨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9나')처럼 서술어구 앞도 가능하고, (9나")처럼 서술어 앞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부사의 자유로운 어순 재배치만으로는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 (9)의 예문을 보면 부사가 이동한 후에도 ‘빨리, 무릇’이 후행하는 ‘피자, 철수, 인간’을 수식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사가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려면 뒤에 오는 체언과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하다.

- (10) 가. 그곳에는 부자가 [[아주] 많다].
 가'. 그곳에는 [아주 [부자가 많다]].
 가". 그곳에는 [[아주 부자]가 많다].
 나. 그 빵이 옆에 [바로 [있다]].
 나'. 그 빵이 [바로 [옆에 있다]].
 나". 그 빵이 [[바로 옆]에 있다]¹⁰⁾.

10) (10가, 나)에서, (10가", 나")로 도출 과정이 공식적으로 상정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금희(2011)에서 제시된 통사적 구성에서 어휘화한 부사들 중에 ‘눈빨리, 길바로, 제아무리’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부사인 ‘빨리, 바로, 아무리’ 등이 동사가 아닌 명사와의 결합 가능성이 통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것은 ‘아주, 바로’가 기본적으로는 동사 수식의 기능을 하다가 현대국어로 오면서 체언을

(10가, 나)의 부사 ‘아주, 바로’는 서술어 바로 앞에서 수식해 주는 성분 부사들인데 이들은 (10가’, 나’)처럼 ‘부자가 많다, 옆에 있다’의 구에 선행될 경우 서술어구를 수식할 수도 있다.¹¹⁾ 그런데 부사가 후행하는 서술어구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재구조화를 일으켜 (10가”, 나”)처럼 바로 뒤에 있는 ‘옆, 부자’를 수식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재구조화를 일으키는 기제는 후행하는 명사의 의미에 [정도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주 부자’의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란 뜻으로 명사 ‘부자’에는 정도성을 따질 수 있는 의미 자질이 들어 있다.¹²⁾ 즉 ‘그는 아주 부자도 아니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아니다.’처럼 ‘부자’는 ‘가난한 사람’과 계열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부자’ 안에는 ‘아주’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정도성]의 의미 자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는 ‘시간상의 거리감이 없음’을 나타내는 부사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의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가 후행하게 되면 ‘바로’와 재구조화될 수 있다. 즉 이 부사는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인 앞, 뒤, 위, 아래 등과 인접할 때 기준점으로부터 그 위치와의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부사가 명사에 선행하더라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자질이 없는 명사가 오게 되면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는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수식하게 되었다는 통시적인 기능 변화의 측면에서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11) 물론 이때는 부사 ‘아주, 바로’를 발화한 후에 휴지가 있게 된다.

12) 서정수(1971:206)에서는 정도부사가 명사적 서술어를 수식하는 ‘매우 부자’이다, 꽤 멋장이다, 꽤 바보이었다와 같은 구성에서 정도 부사가 수식할 수 있는 명사적 서술어는 ‘돈 많은 사람(부자), 멋있는 사람(멋쟁이), 어리석은 사람(바보)’처럼 <상태동사>+<명사>로 분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외 김선희(1983), 홍사만(2002) 등에서도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는 구성은 그 체언에 [+정도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 (11) 가. 그는 [돈이 [아주 많다]].
 가'. 그는 [아주 [돈이 많다]].
 가". *그는 [[아주 돈]이] 많다.
 나. 그는 [빵을 [바로 먹었다]].
 나'. 그는 [바로 [빵을 먹었다]].
 나". *그는 [바로 빵]을] 먹었다.

(11가, 나)에서 보는 것처럼 ‘아주, 바로’가 서술어구 앞으로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수식하는 서술어구의 체언이 ‘빵’이나 ‘돈’이 될 경우에는 (11가', 나')처럼 서술어구 전체를 수식할 수는 있으나 ‘바로, 아주’가 ‘빵’이나 ‘돈’을 수식하는 (11가", 나")로 해석될 수는 없다.

이처럼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게 된 것은 부사가 구에 선행되고 체언과의 의미 관련성으로 인해 재구조화가 일어나면서 생긴 것이다. 그리고 이때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는 대부분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체언이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체언은 ‘부자, 가난뱅이, 구두쇠, 미인, 미남’ 등의 명사나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는 수사, 그리고 멀고 가까움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나 장소 명사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 (12) 가. {아주/너무/?무척} 부자를 만나도 부담스럽다.
 나. 관객이 {무려/대략/약/겨우/고작} 천 명이 모였다.
 다. {더/약간/조금} 위를 보세요. 그래야 사진이 잘 나와요.

(12가)의 ‘부자’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그 정도를 따질 수 있고, (12나)의 ‘천 명’은 화자의 느낌에 따라 많고 적음이 달라질 수 있는 수이며, (12다)의 ‘위’는 기준점에서 더 멀고 가까움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이다. 그런데 국어에서 명사를 수식해 주는 범주는 관형사인데 관형사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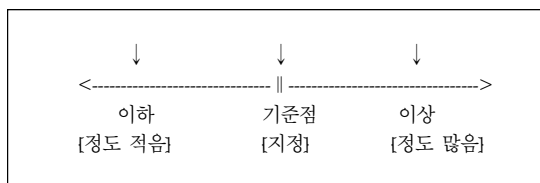
는 이런 명사들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사라는 문법범주를 활용해 그것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¹³⁾ 체언 수식 부사들은 이처럼 많고 적음, 멀고 가까움의 정도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렇지 않은 예도 보인다.

(13) 가. 내가 아니라 {바로} {영희가/그가} 널 좋아한다고 말했어.

나. 난 {딱/꼭/똑} 네가 와 주었으면 하는데.

(13가, 나)의 ‘바로, 딱, 꼭, 똑’은 고유명사인 ‘영희’와 인칭대명사 ‘너’를 수식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부사가 정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뒤 명사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명사라고 지정’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정도의 많고 적음’과 ‘지정’은 전혀 다른 의미 범주처럼 보인다. 그러나 어떤 기준점을 중심으로 그 이상을 가리키게 되면 ‘정도의 많음’을 나타내고 이하를 가리키면 ‘정도의 적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기준점을 가리키게 되면 ‘지정’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 범주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라고 본다.

[표1] 정도성과 지정성의 관련성



13) ‘많은 정보, 큰 부자, 작은 사랑’ 등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결합하여 명사의 정도를 표현할 수도 있으나 이런 형태들은 부사들을 쓸 때와 달리 양태적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러면 이런 지정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모든 명사들을 수식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14) 가. 바로 그가 왔다.

가'. [바로 [그가 왔다]]

가". [[[바로 그]가] 왔다].

나. 바로 빵을 사와라.

나'. [바로 [빵을 사와라].

나".* [[[바로 빵]을] 사와라]

(14가)의 예를 보면 ‘바로’가 ‘그가 왔다’에 선행될 경우는 (14가')처럼 ‘그가 왔다’ 구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지만 (14가")처럼 부사 ‘바로’에 후행하는 ‘그’를 수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14나")처럼 ‘빵’을 수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 또한 ‘바로’에 후행하는 ‘그’와 ‘빵’이 갖는 의미 자질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지시대명사’로 [지정성]를 갖고 있는 명사인 데 반해 일반명사인 ‘빵’에는 그런 의미 자질이 없다. (14가)에서처럼 ‘그’는 ‘바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14나)처럼 ‘빵’은 수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빵’은 [지정성]의 의미 자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빵’도 ‘바로 그 빵’처럼 ‘빵’에 ‘그’를 결합하게 되면 ‘바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명사 중에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자질을 가진 것들이 있고, 이들이 부사와 인접하면서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재구조화 현상을 겪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 체언 수식 부사의 목록이 논자에 따라 다양하고 일치하지 않은 것은 어떤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이냐, 아니면 서술어구를 수식하는 것이냐에 대한 견해가 다르기 때문인 듯하다.

(15) 가. {더} 아래로 내려가시면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나. {대략/약} 2~3천 개는 만들어진 것 같다.

다. 나는 {오직} 책만 읽는다.

라. 철수가 {몹시} 부자야.

(15가~라)의 ‘더, 대략/약, 오직, 몹시’는 기존 논의에서 체언 수식 부사로 보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한다. (15가)의 ‘더’는 ‘아래’만을 수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다’라는 서술어구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는 실제 발화 상황에서나 판단이 가능한데 ‘더’와 ‘아래’ 사이에 휴지를 두게 되면 후행하는 서술어구 전체를 수식하나 ‘더 아래로’를 휴지 없이 발화하고 ‘더 아래로’ 다음에 휴지를 두게 되면 ‘더’는 확실히 ‘아래’를 수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15나)의 ‘대략’과 ‘약’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조차 품사를 달리해 ‘대략’은 부사로, ‘약’은 관형사로 처리되고 있는 항목이다.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 앞에서 실제 용법이나 의미에 차이가 보이지 않음에도 ‘대략’은 ‘대략 이야기해 봐.’처럼 동사에 선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직 부사로 처리되고 ‘약’은 그런 예가 존재하지 않고 항상 수량 명사에 선행하기 때문에 관형사로 처리되고 있다.¹⁴⁾

(15다)의 ‘오직’의 경우도 ‘책만 읽는다’의 서술어구를 수식하는 것인지 ‘책’을 수식하는지는 문장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고 실제 발화 상에서 어디에 휴지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오직’은 ‘책’을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려면 한정정보조사 ‘만’이 같이 나타나야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는 오직 책을 읽는다.’처럼 ‘만’이 없는 경우에는 ‘오직’이 후행하는 ‘책을 읽는다’를 수식해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바로 땀이 어색한 것처럼 ‘오직’이 ‘책’을 한정 수식할 요소를

14) 이은규(2011)에서는 ‘약’과 함께 ‘대략’을 관형사로 보아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책’이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책만’으로 한정성을 갖는 명사구가 된 후에야 ‘오직’의 수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5라)의 ‘철수가 몹시 부자야’의 ‘몹시’가 ‘부자’를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이다.

(16) 가. 그는 아주 부자이다.

가’. 그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자이다.

나. 그녀는 꽤 미인이다.

나’. 그녀는 꽤 (얼굴이 예쁜) 미인이다.

이규호(2008:22)에서는 (16가, 나)는 (16가’, 나’)처럼 ‘아주, 꽤’가 수식하는 ‘돈이 많은, 얼굴이 예쁜’ 정도의 관형사절이 있던 것인데 이것이 생략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였는데 문제는 부사가 ‘체언+이다’ 구성 앞에서 수식하는 것이 ‘체언’만이냐 아니면 ‘체언+이다’ 전체이냐 하는 것이다.

임유종(1999:60)에서는 지정사구 앞에 나타난 (17가)의 ‘한갓’은 ‘부사’로, 명사구 앞에 나타난 (17나)는 관형사로 보아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17나)의 ‘한갓’은 체언 ‘꿈’을 수식하는 것이지만 (17가)의 ‘한갓’은 ‘꿈이다’ 서술어구를 수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17) 가. 한갓 꿈이다.

나. 한갓 꿈에 불과하다.

또한 황선영·이공주(2002:45)에서도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에서 ‘명사+이다’와 ‘명사+적이다’를 수식하는 구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명사+이다/명사+적이다’ 그 자체가 서술어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이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전형적인 기능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18) 가. 이 아이는 매우 예쁘다.

나. 이 상황은 매우 희망적이다.

다. *매우 희망을 갖자. (황선영 · 이공주, 2002:45 예)

(18가)에서 ‘매우’가 형용사 ‘예쁘다’를 수식하는 것처럼 (18나)의 ‘매우’도 ‘희망’이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적이다’의 상태성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8나)의 구성에서는 ‘매우’가 쓰일 수 있지만 (18다)의 구성에서는 ‘매우’가 ‘희망’이라는 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고 보았다.

(19) 가. 그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크게} 절망이었다.

나. 그는 {큰/*크게/아주} 부자이다.

다. 그녀는 {*놀라운/놀랍게/아주} 예쁘다.

그러나 ‘명사+이다’ 앞에 선행하여 수식하는 성분을 살펴보면 (19가)의 예에서 보듯이 ‘부사어’ 형태인 ‘크게’는 수식이 불가능한 데 반해 ‘관형어’인 ‘큰’이 수식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19나)의 ‘아주’는 ‘큰’처럼 관형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다)의 경우는 ‘예쁘다’를 수식하는 ‘아주’는 부사어가 수식하는 자리에 존재하므로 이때의 ‘아주’는 부사어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N+이다’에 선행하는 부사들도 서술어구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는 정도성을 나타내는 정도부사들이나 양태성을 나타내는 양태부사들이 정도성이나 지정성의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구)들과 결합할 때 보이는 현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한편, 기존 논의에서 또는 사전에서 이미 관형사로 처리하는 것들 중에도 부사에 기원을 둔 것으로 아직 부사성을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충,

장장, 약의 경우는 체언에 선행되는 분포로 인해 이미 사전에서 관형사로 다루고 있는 단어들이다. 그리고 이은규(2011)에서는 이들과 함께 ‘대략, 무려, 물경, 불과, 어언, 한갓, 한낱’ 등도 체언에만 선행하는 관형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항목은 아직 동사(구)를 수식하는 부사적인 용법을 가진 예들이 보이므로 쉽게 관형사로 단정을 짓기는 어려울 듯하다.

- (20) 가. 이 포고가 발표되자 서울시청의 직원들은 휴근(休勤)을 결정하고 경기도청 직원들은 총 사직을 결정했다. <이병주, 지리산> 가’. 이 포고가 발표되자 서울시청의 직원들은 휴근(休勤)을 결정하고 경기도청 직원들은 {모두/*모든} 사직을 결정했다.
나. 그리고 현재 그들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총 소득액의 5% 정도라고 한다. <정비석, 비석과 금강산의 대화>
나’. 그리고 현재 그들이 국가에 바치는 세금은 {*모두/모든} 소득액의 5% 정도라고 한다.

(20가)의 ‘총 사직을 결정했다’의 경우는 ‘총’ 대신에 관형사 ‘모든’은 어색하지만 부사 ‘모두’로 교체가 가능한 데 반해 (20나)의 ‘총 소득액의’의 ‘총’은 ‘모두’보다는 ‘모든’으로 교체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20가)의 ‘총’은 부사적인 쓰임이고 (20나)는 수량 ‘5%’를 수식하는 쓰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총’을 사전에서처럼 완전히 관형사 범주로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 (21) 가. 이튿날 아침, 칠보는 수진에게 대략 귀뿔을 해 주고 면소로 나갔다.<한승원,해일>
나. 식사를 대략 끝낸 뒤에 인화는 부리나케 스승에게 도로 입경하기를 채근하였다.<김동인, 젊은 그들>
다. 산도가 보고한 바로는 양쪽 희생자를 모두 합해 대략 삼백 명이

난리 중에 죽었다고 하였고…〈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대략’의 경우도 (21가, 나)처럼 동사구나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부사적 쓰임이 많은 예에서 보이기도 하지만,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예가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체언 수식 부사를 논의할 때 이들은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체언을 더 자주 수식하느냐, 용언을 더 자주 수식하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부사가 아닌 관형사로 처리하기에는 부사와의 의미 관련성을 무시하기 어렵다.¹⁵⁾

그렇다면 체언 수식 부사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관형사처럼 체언에 주로 선행하여 수식하더라도 그 기원을 부사에 두고 있으면 체언 수식 부사에 포함시켜야 하고, 체언 앞에서 특별한 의미가 발생된다면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부사들이 체언을 수식하게 되는 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체언 수식 부사는 다음 정도가 될 것 같다.¹⁶⁾

(22) 체언 수식 부사 목록

가장, 거의, 겨우, 고작 곧, 극히, 꼬박, 꼭, 너무, 다만, 단지, 대략, 더, 되게, 딱, 똑, 무려, 바로, 불과, 소위, 아주, 오직, 이른바, 장장, 진짜, 천생, 한갓, 한낱, 훨씬…¹⁷⁾

15) 국어의 문법범주에는 의미와 형태가 동일하나 분포가 다른 점을 고려해 품사를 달리 설정하는 예는 많이 있다. ‘만큼, 대로, 뿐’이 명사 다음에서는 조사로, 용언의 활용형 다음에는 의존명사로 분류되고,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어제, 오늘, 내일’ 등은 명사와 부사로 품사가 설정되어 있다.

16) 부사의 체언 수식은 닫힌 범주가 아닌 열린 문법 범주일 가능성이 크다. 본고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의 항목을 제시하지만 이것으로 고정하지는 않는다.

17) 이 항목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장장(관형사)’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사’로 처리되고 있다. ‘거의, 겨우, 고작, 대략, 진짜, 천생’은 ‘명사’와 ‘부사’ 두 개의 품사로 처리되어 있고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부사로 처리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체언 수식 부사가 발생한 이유는 문장 내에서 부사가 자유롭게 배치되고 그와 함께 후행하는 체언이 [정도성]과 [지정성]을 가진 의미적인 특질로 인해 선행 부사와 결합 정도가 높아져 수식이 가능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체인 수식 부사의 유형들을 그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에 따라 분류해 보면 대체로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와 ‘시간 및 거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정도성을 가질 수 있는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체언 수식 부사들이 ‘수량, 위치, 정도’ 등을 나타내는 체언을 한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남기심·고영근(1985, 1993:275)에서도 제시되었다. 그 이후의 논의인 황선영·이공주(2002:47-48)에서는 정도성의 의미 속성을 가진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장, 극히, 아주)와 수량이나 횟수를 표현하는 경우(거의, 겨우, 고작) 외에, 부사 자체의 의미적 제약으로 인한 수식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단지, 오직, 오로지; 특히, 특별히; 이른바, 소위), 조사와의 호응을 보이는 경우(심지어, 마치), 그리고 관용적인 구를 형성하는 경우(더 이상, 오래 전, 한참 전, 다시 한 번, 또 하나) 등을 추가하여 체언 수식 부사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였다. 그런데 이 논의의 의미 분류를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부류는 수식을 받는 명사의 의미 특성에 따른 분류인 데 반해 세 번째는 수식을 하는 부사의 자체적인 의미에 따라 체언을 수식하는 것들로 앞의 두 종류와는 다른 기준으로 ‘단지, 오직, 오로지’와 ‘특히, 특별히’, ‘이른바, 소위’를 묶어 놓았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분류된 ‘마치, 심지어’는 조사와 호응 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함께 묶었다.

그러나 체언 수식 부사도 일반 부사들이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의 종류에 따라 분류(문장부사, 성분부사)되거나 수식을 하는 부사의 의미 기능에 따라 분류(시간성 부사, 공간성 부사, 정도성 부사, 양태성 부사 등)되는 것처럼 일관된 분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체언 수식 부사의 경우 전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수량을 나타내는 수사를 수식하는 부사(겨우 하나, 무려 5천 명)’나 ‘위치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바로 앞, 가장 가운데)’, 그리고 ‘정도성을 지니는 명사(아주 부자, 꽤 미인)’를 수식하는 부사, 그리고 지시성을 갖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딱 너, 바로 그 친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사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기준점의 이상과 이하를 가리켜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기준점을 바로 가리키는 지정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기준에 따라 체언 수식 부사의 유형을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1. 정도성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크게 수량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와 위치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 상태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수량의 정도성은 어떤 수나 양이 기준 이상이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기준 이하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기준에 일치하거나 가깝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함께 수량이 정확한 수치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략적인 추정치를 나타내려는 경우와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2] 수량의 정도성

대분류	의미	항목	양태적 의미
수량	기준 이상	무려, 장장 ¹⁸⁾	지나침, 예상보다 많음
	일치/ 가까움	딱, 꼭, 거의	딱, 꼭·아쉬움, 불만족 거의·힘들게
	이하	겨우, 고작, 불과, 극히	미흡함, 부족함, 불만족
	추정치	대략	불확실함
	정확치	총	확실함

- (23) 가. 다음 날 아침 무려 10여 명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전상국, 지
빠귀 등 속의 빠꾸기>
가'. (?*무려) 다음 날 아침 10여 명의 형사들이 (*무려) 들이닥쳤다.
나. 거의 10년을 그 일만 했다.
나'. 10년을 거의 그 일만 했다.
다. 동생은 겨우 하나를 주고 혼자 다 먹으려 하니?
다'. 동생은 하나를 겨우 주고 혼자 다 먹으려 하니?
라. 극히 소량만을 넣었는데도 효과가 빨리 온다.
마. 무기는 아까 어느 분의 말씀처럼 대략 삼분의 이가량이 암시장
으로 흘러나가 버렸습니다.<황석영, 무기의 그늘>
마'. 이야기를 대략 들어 봐도 네 잘못은 아니다.
바. 총 200개만 (*총) 흡수되고 나머지는 버려졌다.
바'. 총 모인 사람은 (총) 100여 명에 달했다.

18) 표준국어사전에서 관형사로 처리되고 있는 '장장'의 경우 부사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는 예가 존재한다.

가. 그들은 장장 주리고 배고프니, 왜장에게 항복해서 왜장의 앞잡이가 되어 길도 가르쳐 주고<박종화, 임진왜란>

나. 종제가 장장 칠성이와 더불어 배당받은 포스터는 백 장이 넘었다. <최인호, 지구인>

(가, 나)처럼 수를 나타내는 체언이 아닌 용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예도 있고, 체언 바로 앞이 아닌 (나)와 같은 예도 존재하는데 이 예에서는 '장장'이 부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3가~마)의 ‘무려, 거의, 겨우, 대략, 총’은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려, 대략’의 경우는 (23가’, 라’)처럼 문장의 맨 앞에 올 경우에 어색한 문장이 되거나 서술어를 수식하는 위치에 오면 비문이 된다. 수를 나타내는 수사나 명사구 앞에서 그 수량이 ‘아주 많음’이나 ‘대충 헤아림’을 나타낸다. (23나, 다)의 ‘거의, 겨우’는 수량을 나타내는 체언 앞에 있을 때는 그 수량을 한정하는 의미이지만 서술어 앞에 오게 되면 서술어를 수식하게 된다. (23나)에서 ‘거의’는 ‘10년’을 수식하면서 ‘10년 가까운 시간’이란 의미를 나타내지만 (23나’)의 ‘거의’는 ‘다른 일은 하지 않고 그 일을 주로’ 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3다)의 ‘겨우’도 ‘하나’를 수식할 때는 ‘아주 적은 수인 하나’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23다’)의 ‘겨우’는 ‘주다’를 수식해 하나를 ‘아주 힘들게’ 준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23라)의 ‘극히’는 ‘아주 적은’ 정도를 의미하는데 ‘일부, 소수’처럼 적은 양이나 수를 의미하는 체언과 결합한다. 그리고 이때는 ‘일부’나 ‘소수’라는 어휘에 이미 ‘적은 양’이라는 의미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부사가 체언이 ‘아주 적은’ 정도라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정도가 적은 것을 강조한다.¹⁹⁾

(23마)의 ‘대략’은 ‘삼분의 이’를 수식하며 그 숫자가 추정치임을 나타내나 (23마’)의 ‘대략’은 ‘들어 봐도’를 수식하며 이야기를 ‘대강’ 듣는다는 의미이다.

(23바)의 ‘총’은 수를 나타내는 말 앞에서 수사를 수식하는 구성이고 (23바’)의 ‘총’은 ‘모이다’를 수식하는 부사의 쓰임인데 전자는 위치의 이

19) 이처럼 체언의 의미에 정도성이 적용이 내재해 있는 경우에는 ‘극히, 아주, 진짜’ 등이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인다.

가. 아주 소수만이 그 의견에 찬성했다.

나. 극히 소수만이 그 의견에 찬성했다.

다. 진짜 소수만이 그 의견에 찬성했다.

동이 불가능한 데 반해 후자는 위치 이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처럼 수량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양태적인 의미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준치 이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무려, 장장’ 등은 화자가 판단하거나 평가하기에 그 시간이나 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심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기준 이하를 나타내는 ‘겨우, 고작, 불과’ 등은 수식하는 수나 양이 ‘아주 미흡하거나 부족함, 불만족함’을 나타낸다. 기준에 일치하거나 가까움을 나타내는 ‘거의, 꼬박, 딱, 꼭’의 경우는 ‘거의’은 ‘힘들게’라는 의미를 ‘딱, 꼭’은 ‘아쉬움’의 태도가 드러난다.

- (24) 가. 그가 {딱/꼭} 열 개를 주었다.
가'. 그가 열 개를 주었다.

(24가)의 ‘딱, 꼭’이 들어있는 경우 (24가')처럼 부사가 없을 때와 비교해 보면 후행하는 ‘열 개’라는 수가 ‘정확한 수’임을 의미하면서도 그 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아쉬운 수’라는 양태적인 의미가 드러나기도 한다.

위치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부사들은 주로 위치를 나타내는 ‘앞, 뒤, 전, 후, 위, 아래’나 방향을 나타내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또는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를 수식하는데 주로 위치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런 위치는 장소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표3] 위치의 정도성

대분류	의미	항목	양태적 의미
위치 (장소, 시간)	땡/높음	너무, 훨씬, 가장, 아주	아쉬움, 불만족함
		더	만족스러움
	일치/가까움	가장, 바로	만족스러움

내지만 절대적인 개념을 가진 체언들을 수식할 때는 그 장소와 일치함을 나타낸다.(김선희1985:125-127) 그러므로 ‘너, 거기, 영화’와 같은 지시대명사나 고유명사와 결합할 때는 지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26) 가: 더 앞으로 가야 해?

나: 바로 앞에 있어. 조금만 더 가.

이제 됐어. 바로 거기야.²¹⁾

눈이 안 보이거나 장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위치를 알려 줄 때 (26)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26나) 처럼 ‘바로 앞’이라고 할 때는 기준점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앞’임을 의미하고, ‘바로 거기’라고 할 때는 ‘거기’라는 위치와 일치함을 ‘바로’가 나타내게 된다. 이처럼 ‘바로’는 뒤에 오는 체언의 종류에 따라 의미하는 바가 달라진다.

체언 수식 부사에는 수량이나 위치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경우 외에 후행하는 체언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정도가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경우와 일치함을 나타내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4] 상태의 정도성

대분류	소분류	항목	양태적 의미
상태	기준 이상	아주, 너무	기대 이상
	일치	진짜(영망), 천생(여자)	만족스러움
	이하	겨우, 고작, 한갓, 한낱	하찮음

(27) 가. 오늘 이주 부잣집에서 중매가 들어왔구나 봐. <박완서, 도시의 흉년>

21) 김선희(1985:127)에서 제시한 예문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

나.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뱅이도 결혼 상대자로는 부담스럽다.

(27가~나)의 ‘아주, 너무’는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면서 피수식어인 체언이 기준 이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아주 부자집’은 일반적인 ‘부자집’이 아닌 그 이상의 부자집을 뜻하고 ‘너무 부자, 너무 가난뱅이’도 ‘부자’와 ‘가난뱅이’의 정도를 ‘너무’가 나타낸다.

(28) 가. 엉망이라고! 내가 진짜 엉망을 만들어 봐.

가’. 엉망이라고! 내가 엉망을 진짜 만들어 봐.

나. 계집이라고 천생 말상을 해 가지고 소박 안 맞으면 거짓말이지.

《이무영, 농민》

나’ *계집이라고 말상을 천생 해 가지고 소박 안 맞으면 거짓말이지.

(28가, 나)의 ‘진짜, 천생’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체언의 ‘순도(純度)’를 나타내거나 ‘정수(精髓)’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이다. 순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준 이상을 나타내는 ‘아주’와도 어느 정도 의미가 상통한다. (28가’)처럼 ‘진짜’가 서술어를 수식하게 되면 그 행동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성 여부를 의미하는 것과 달리 (28가)는 엉망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이다. (28나)의 ‘천생’은 (28나’)처럼 서술어를 수식하게 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28’) 가. 엉망이라고! 내가 아주 엉망을 만들어 봐.

나. 계집이라고 아주 말상을 해 가지고 소박 안 맞으면 거짓말이지.

(28가~나)의 ‘진짜, 천생’을 (28’가~나)처럼 ‘아주’로 교체했을 때 거의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어느 기준 이상의 큰 정도성을 나타내기 때문인 듯하다.

- (29) 가. 겨우 날뽀팔이를 하려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웠니?
 나. 고작 학원 선생을 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한 줄 알아.
 다. 그 일로 인해 내 꿈은 한갓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라. 한날 비렁뱅이 주제에 어디를 넘보느냐?

(29가~라)의 ‘겨우, 고작, 한갓, 한날’은 기준 이하의 대상을 수식할 때 쓰는 부사들인데 ‘겨우, 고작’은 기준 이하의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가 느끼기에는 ‘아주 하찮음’이나 ‘불품없음’ 등의 양태적인 의미가 드러난다. (29다, 라)의 ‘한갓’은 ‘헛된(쓸모없는)’의 의미를, ‘한날’은 ‘보잘것없는’의 양태적인 의미가 들어 있다.

- (29') 가. {겨우/?한갓/한날} 날뽀팔이를 하려고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웠니?
 나. {고작/?한갓/한날} 학원 선생이나 하려고 내가 그 고생을 한 줄 알아.
 다. 그 일로 인해 내 꿈은 {한갓/한날/*겨우/*고작}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라. {한날/한갓/겨우/고작} 비렁뱅이 주제에 어디를 넘보느냐?

‘겨우, 고작, 한갓, 한날’은 의미상으로 매우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러나 (30' 가, 나, 라)에서 보는 것처럼 서로 교체할 수 있는 예문이 있는가 하면 (30' 다)처럼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3.2. 지정성

체언 수식 부사 중에는 후행하는 체언을 지시, 지정하는 것들도 있다. 이런 부사들은 의미상으로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표5〕 지정성

대분류	소분류	항목	양태적 의미
한정	부연	소위, 이른바, 곧	강조
	단정	바로, 오직, 딱, 똑, 꼭, 단지, 다만	확실함

(31) 가. 이 기간 동안에 신문 이외의 다른 미디어, 소위 뉴우 미디어가 비로소 본격적인 대중 매체로서 전국에 보급됨으로 해서…<정치와 언어>

나. 이때 탄산가스가 방출되므로 거품이 나오는 이른바 발효(醱酵)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한국민속대관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다. 조선, 곧 한국은 독립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31가~다)의 ‘소위, 이른바, 곧’은 모두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인데 이들의 공통점은 뒤에 오는 체언이 모두 선행하는 내용을 다시 가리킨다는 점이다. 이때 선행하는 성분은 (31가, 다)처럼 체언과 같은 개념의 명사나 명사구가 오거나 (31나)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절이 온다.

(32) 가. 바로 너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나. 그는 오직 영화만 좋아한다.

다. 딱 네가 내 마음에 들었다.

라. 똑 그를 후계자로 임명한 이유가 있을까.

마. 이진 전부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이규 꼭 너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이병주, 지리산>

바. 네 꿈을 버리고 단지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

사.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다만 너라도 남아 있어라.

(32가~마)의 ‘바로, 오직, 특히, 딱, 똑, 꼭’은 ‘다른 대상이 아닌 바로 그것’이라는 의미를 갖는 수식어로 후행하는 체언을 한정해 주는데 이때

화자는 그 체언이 확실하다는 단정의 태도가 들어있다. (32바, 사)의 ‘단지, 다만’은 모두 문장부사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체언을 수식하게 될 때는 그 대상을 단정하면서 ‘유일함’을 나타낸다.

4. 결론

본고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고 그러한 부사들을 의미에 따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지를 고찰해 보았다. 부사의 체언 수식은 체언과 인접된 부사가 체언과의 의미 관련성으로 인해 수식과 피수식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부사가 위치 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부사만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생기게 되고, 체언들 중에도 부사의 수식을 받게 되는 것이 한정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는 전체 부사 목록 중에 몇몇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들을 그것의 의미에 따라 분류해 보면 ‘수량의 정도성을 나타내는 것, 위치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상태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한정, 지시하는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좀 더 세분하면 ‘수량의 정도성’은 ‘많고 적음, 그리고 일치함’, ‘추정치’나 ‘정확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고, ‘위치의 정도성’은 ‘멀고 가까움, 그리고 인접함’을, ‘상태의 정도성’은 ‘기준 이상이거나 이하, 일치’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지정’을 나타내는 경우는 선행하는 내용을 다시 말하는 부연을 하는 경우와 단정을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이 발생하게 된 연유와 그 부사들이 의미에 따라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러나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들의 목록이 아직 완벽하게 걸러지지 못했고, 이들을 분류

한 의미 기준 또한 정밀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음 연구 과제로 미룬다.

참고문헌

- 김경훈, 「국어의 부사수식연구」, 『국어연구』37, 서울대 국어연구회, 1977
- _____, 「국어 수식어에 대한 관견」, 『개신어문연구』12, 개신어문학회, 1995, 21-44면.
- 김은영, 「체언 수식 부사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10.
- 김선희,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분석」, 『한글』187-1, 1985, 123-139면.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2012.
- 목정수·연재훈, 「상징부사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12, 한국어학회, 2000, 89-118면.
- 민현식,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10, 2002, 227-250면.
- 박선자,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1996.
- 서상규, 「정도부사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조명과 그 분류에 대하여」, 『연세어문학』23, 1991, 219-266면.
- 서정수, 「국어 부사류의 구문론적 연구(Ⅱ)-계약부사론」, 『동방학지』1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1, 197-221면.
- _____, 『국어문법』,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5, 767-875면.
- _____, 「한국어의 부사」, 『한국의 탐구』32,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 손남익,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1995.
- 왕문용·민현식,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1993.
- 이규호, 「체언 수식 부사-부사 관형 구성 연구」, 『국어학』51, 2008, 3-28면.
- 이금희, 「統辭的 構成에서 語彙化한 副詞에 대하여」, 『어문연구』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117-135면.
- 이선희, 「현대 일본어 정도부사의 특징에 관한 일고찰-피수식어와의 공기관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 이수미·김민국, 「새로운 유형의 관형사 설정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24, 한말연구학회, 2009, 165-194면.

- 이은규, 「체언 선행 부사에 대한 관견」, 『국어학61집』, 국어학회, 2011, 291-320면.
- 임유중, 「국어 부사의 범주 정립과 호응 및 어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7.
- 파베우 키다, 「한국어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0.
- 한정환, 「품사로서의 명사와 통사범주로서의 명사」, 『한말연구』23, 한말연구학회, 2008, 427-451면.
- 허 응, 『20세기 형태론』, 샘문화사, 1995, 406-409면.
- 황선영·이공주, 「구조적 중의성 해결을 위한 명사 수식 부사 연구」, 『한국 인지과학 학회 논문지』13-4, 한국인지과학회, 2002, 43-53면.
- _____,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하여-이른바 체언 수식 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42, 한국어학회, 2009, 317-343면.
- Bybee, Joan & Pagliuca, William, *The Evolution of Grammar-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Hopper, Paul and Elizabeth C.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 Press, 1993.
- Laurel J. Brinton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Lexicalization and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 press. 2005.
- Quirk, R.,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Seminar Press, 1972, pp.279-280.

Abstract

On the Occurrence of Adverbs Modifying Nouns
and their Semantic classification

Lee, Keum-hee

This paper concentrates on a special usage of adverbs in Korean. Adverbs may modify a variety of grammatical units such as predicates, adverbs, clauses and even full sentences.

But some adverbs can modify nouns, and these kinds of adverbs are called Noun Modifying Adverbs.

Adverbs do not originally modify nouns. This characteristic occurs by moving the adverb in front of the noun and is due to the relevance of the meaning between the adverb and noun.

These adverb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groups depending on their meaning. The first group represents the quantity of the more and less degree. The second group represents the location of the distant and nearest degree. The third group represents the state of the much and less degree. The last group represents the specification and emphasis of a noun (phrase). And these adverbs represent modality of dissatisfaction, certainty and inconvenience etc.

【Key words】 noun modifying adverb, restructuring process, degree of the quantity, degree of the location, degree of the state, the specification and emphasis, modality meaning

논문 투고: 2014년 10월 31일, 심사 완료: 12월 3일, 게재 확정: 12월 5일